

여성 간호직 근로자의 노인부양의식

이미정¹, 전만중, 유병철, 이용환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¹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in Female Nurses

Mi-Jung Lee¹, Man-Joong Jeon, Byeng-Chul Yu, Yong-Hwan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Abstract

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appropriat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reducing relevant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female nurses'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Method :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2007 till October 2007.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220 female nurses working at three hospitals located in Busan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dummy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ver 12.0k) program.

Result : The mean score for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in female nurses was 3.56 ± 0.51 .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was high in groups of 20-29 years group, experience of voluntary service, living together with their parents, lived with progressive home education environment and lived with harmonic family, respectively.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female nurses was influenced by experience of voluntary service,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type of parent's education, family harmony and age.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vel of supports displayed by female nurses was influenced by the factors such a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parents and volunteer works, and harmony of family. In order to provide substantial assistance for the elderly, we need national-wide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cultural backgrounds for volunteer work and social programs for family harmony.

Key words : female nurses,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서론

노인부양의식이란 부모에 대한 의무, 보호부양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부양태도 또는 노부모의 복지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적 의무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의무와 의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노인비율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인 노인부양의 필요성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족이 노인부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부양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보

편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노인수발을 담당했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부양 가족에서는 여성의 다양한 가족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으며 노인부양이 부양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¹⁾

이와 같은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인부양의 문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으로 인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불확실하며, 국가적인 노인복지정책도 완벽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인구노령화 현상은 부모-자녀 간의 동거 년

교신저자 : 유 병 철
주소 :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EL : 051-990-6425 FAX : 051-990-3081
E-Mail : ybc777@mail.kosin.ac.kr]

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부모부양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기혼자녀세대에게 부양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부양 세대인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부양세대에게도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가족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²⁾ 노부모들은 전통적 생활양식인 집합주의적 가족주의에 익숙한 반면 자녀들은 개인 중심주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 세대 간에 가족주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부양갈등을 초래 할 수 있다.^{3,4)}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구구조를 변모 시키고 지속적인 노인부양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⁵⁾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000년 10.1%, 2004년 12.1%에서 2020년에는 21.3%가 되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생산인구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 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노인부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중에서 노인수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간호직종 근로자의 노인부양 의식수준을 조사하고 여성근로자의 실정을 고려한 노인 부양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3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성 간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된 224부 중 불완전하게 기재된 4부를 제외한 220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가.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본 연구는 설문지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도구는 이병준⁷⁾, 서명준⁸⁾, 정선주⁹⁾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기본으로 예비조사(10부)를 실시한 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7문항, 가족관련 특성 7문항, 노인부양의식 18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부양의식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처리하였다. Cronbachs' α 방법을 이용하여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노인부양의식은 신뢰도 계수 $\alpha=0.859$ 이었으며 하위 구성요소인 경제적 부양의식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17$, 정서적 부양의식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787$, 신체적 부양의식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50$ 로 나타났다.

나. 자료처리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Window SPSS(ver. 12.0 K)를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 t-test, one-way ANOVA 및 더미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대 95명(43.2%), 30대 78명(35.4%), 40대 이상 47명(21.4%)이었으며 학력은 고졸 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N)	Proportion (%)
Age(years)	20 ~ 29	95	43.2
	30 ~ 39	78	35.4
	40 ≤	47	21.4
Education	High school	35	15.9
	2 or 3 years-course college	121	55.0
	Above 4 years-course college	64	29.1
Marriage	Yes	119	54.1
	No	101	45.9
Religion	Yes	147	67.1
	No	72	32.9
Working period (years)	≤ 9	125	58.1
	10 ~ 19	68	31.7
	20 ≤	22	10.2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 199	61	28.1
	200 ~ 399	85	39.2
	400 ≤	71	32.7
Experience of voluntary service	Yes	125	56.8
	No	95	43.2

하 35명(15.9%), 전문대학 졸업 121명(55.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4명(29.1%)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9년 이하 근무자가 125명(58.1%)이었으며 월 총수입은 200-399만원 이 85명(39.2%)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혼자가 119명(54.1%), 종교가 있는 군이 147명(67.1%), 봉사활동 경험자가 125명(56.8%)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가정환경 특성

연구 대상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44명(65.8%),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가 116명(53.0%)이었으며 주성장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 115명(52.3%)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방식은 진보적인 군 84명(38.2%), 보수적인 군 76명(34.5%), 중도적인 군 60명(27.3%)으로 나타났고 청소년기에 가정이 화목하였던 군이 108명(49.1%), 현재 가족이 화목하다고 응답한 군이 156명(70.9%)로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Family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N)	Proportion(%)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Yes	75	34.2
	No	144	65.8
Experience of living together with grandparents	Yes	103	47.0
	No	116	53.0
Type of parent's education	Progressive	84	38.2
	Moderate	60	27.3
	Conservative	76	34.5
Main growth region	Large city	115	52.3
	Small city	74	33.6
	Rural area	31	14.1
Family harmony of juvenile period	Yes	108	49.1
	Moderate	100	45.5
	No	12	5.4
Family harmony of the present time	Yes	156	70.9
	Moderate	62	28.2
	No	2	0.9

3.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56 ± 0.51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정서적 부양의식수준 3.70 ± 0.52점, 신체적 부양의식수준 3.50 ± 0.75점, 경제적 부양의식수준 3.41 ± 0.77점 등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3. Awareness score of supporting the elderly in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Awareness score (Mean ± SD)
Awareness of financial supporting	3.41 ± 0.77
Awareness of sentimental supporting	3.70 ± 0.52
Awareness of physical supporting	3.50 ± 0.75
Total Awareness score of supporting the elderly	3.56 ± 0.51

4.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연령에 따른 간호직 여성 근로자들의 노인부양의식은 20대 3.89 ± 0.51, 30대 3.45 ± 0.49, 40대 이상 3.58 ± 0.47 등으로 조사되어 연령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40), 사회봉사활동을 경험한 군에서 3.68 ± 0.52, 경험이 없는 군 3.41 ± 0.46으로 나타나 사회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0). 그 외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군에서 3.65 ± 0.51, 미혼자에서 3.60 ± 0.54, 종교가 있는 군에서 3.57 ± 0.54,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군에서 3.66 ± 0.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Awareness score (Mean ± SD)	p
Age(years)	20 ~ 29	3.65 ± 0.54	0.040
	30 ~ 39	3.45 ± 0.49	
	40 ≤	3.58 ± 0.47	
Education	High school	3.65 ± 0.51	0.462
	2 or 3 year-course college	3.57 ± 0.54	
	Above 4 year course college	3.51 ± 0.46	
Marriage	Yes	3.53 ± 0.49	0.325
	No	3.60 ± 0.54	
Religion	Yes	3.57 ± 0.54	0.420
	No	3.55 ± 0.47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 199	3.55 ± 0.54	0.167
	200 ~ 399	3.50 ± 0.45	
	400 ≤	3.66 ± 0.55	
Experience of voluntary service	Yes	3.68 ± 0.52	0.000
	No	3.41 ± 0.46	

Table 5. Comparison of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by family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Awareness score	
		(Mean $\pm$ SD)	p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Yes	3.61 $\pm$ 0.76	0.006
	No	3.32 $\pm$ 0.76	
Type of parent's education	Progressive	3.70 $\pm$ 0.57	0.010
	Moderate	3.46 $\pm$ 0.44	
	Conservative	3.50 $\pm$ 0.48	
Main growth region	Large city	3.57 $\pm$ 0.49	0.837
	Small city	3.54 $\pm$ 0.56	
	Rural area	3.60 $\pm$ 0.49	
Family harmony of juvenile period	Yes	3.68 $\pm$ 0.50	0.002
	Moderate	3.43 $\pm$ 0.46	
	No	3.59 $\pm$ 0.79	
Family harmony of the present time	Yes	3.63 $\pm$ 0.49	0.002
	Moderate	3.40 $\pm$ 0.53	
	No	3.40 $\pm$ 0.53	

5.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부모와 동거는 하고 있는 군에서는 3.61 $\pm$ 0.76, 동거하지 않는 군에서는 3.32 $\pm$ 0.76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군에서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6). 부모의 교육방식이 진보적인 군 3.70 $\pm$ 0.57, 중도적인 군 3.46 $\pm$ 0.44, 보수적인 군 3.50 $\pm$ 0.48로 나타나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0). 그 외 가족의 화목정도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정도는 청소년기에 가족이 화목하였던 군에서 3.68 $\pm$ 0.50, 현재 가족이 화목한 군에서 3.63 $\pm$ 0.4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p=0.002).

6.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미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 경험여부,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의 교육방식, 현재가 족의 화목정도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for awareness of supporting the elderly by dummy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Classification	β	range	p
Age (years)	20~29	-0.109	0.093	0.069
	30~39	-0.202		
	40 $\leq$	0.000		
Type of parent's education	Progressive	0.175	0.187	0.030
	Moderate	-0.012		
	Conservative	0.000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Yes	0.217	0.217	0.002
	No	0.000		
Experience of voluntary service	Yes	0.231	0.231	0.001
	No	0.000		
Family harmony of the present time	Yes	0.750	0.164	0.029
	Moderate	0.586		
	No	0		
Family harmony of juvenile period	Yes	0.221	0.081	0.129
	Moderate	-0.302		
	No	0.000		

[R]² = 0.214, F(p) = 5.620(0.000)

고 찰

현대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 연장, 낮은 출산율, 핵가족화 등의 사회현상에 의해 부양해야할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부양의식 또한 약해져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주체였던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 되어,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¹⁰⁾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의미하는 부양은 노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족은 노인의 욕구충족, 행복감, 만족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부양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¹¹⁾ 노인부양은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친밀감 형성, 효의 실천을 통한 자아만족, 가족 간의 화합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¹²⁾ 그러나, 부양자와 피부양 노인 간의 정서적 유대 정도에 관계없이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부담을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기에¹³⁾ 부양에 대한 부담감 감소는 가족의 노인부양 질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부양부담 가운데 재정적 부담은 가족 부양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경제 문제가 가족의 유대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⁴⁾ 부양부담에 대한 가치관 역시 부양부담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며, 우리나라 여성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부양만족과 부양부담이 상존하고 있으며,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5,16)}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사회여건 및 사회의식의 변화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가족 내 노인부양에 대하여 사회적인 책임과 함께 가족 간 부양 역할 분담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¹⁷⁾ 이에 본 연구는 주 부양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중,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노인부양의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시 소재 3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의식수준은 서명순⁸⁾의 직종간 노인부양의식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노인부양의식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병순⁷⁾의 맞벌이 여성의 양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식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지역과 조사 직종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며 향후 직종별·직종간의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여부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수준에서 미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명순⁸⁾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직 여성근로자의 많은 부분이 미혼이거나 20대 여성으로서 노인부양경험이 부족하고 직종의 특성에 의해 추상적인 간호욕구와 부양욕구가 많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된다. 연령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역시 2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양기간이 길수록 부양자의 신체 및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로 인하여 부양부담이 증대되고, 부양자의 역할갈등 및 개인시간의 상실 등과 같은 부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¹⁸⁾ 학력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높았으나, 노인부양의식의 세대 간 비교연구에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양의식

이 높다고 밝힌 심은지¹⁹⁾, 정선주⁹⁾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심은지¹⁹⁾, 정선주⁹⁾의 연구대상자가 다르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20대 미혼여성에 많이 치우쳐있고 이들에게서 부양부담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종교유무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부양의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이병순⁷⁾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종교가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선미²⁰⁾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있는 군에서 노인부양의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군이 약 70%를 차지하여 집단 간 비교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부모의 교육방법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수준에서 교육방법이 보수적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선미²⁰⁾, 서명순⁸⁾의 연구와는 달리 가정교육환경이 진보적일수록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부모의 교육성향은 주관적이기에 분류편견(classification bias)에 의한 결과차이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정 화목정도에서는 가정이 화목하다고 응답한 군에서 가장 높은 노인부양의식을 나타내었으며 가족친밀감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게 나온 김지영²¹⁾의 연구와 부모와 애정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고, 부모와의 갈등정도가 낮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결과를 보인 조은주²²⁾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명에 지나지 않아 정확한 비교를 하는데 제한점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조부모님과 동거경험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수준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동거경험이 있는 군이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은 조부모를 더욱 친밀하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기능의 단면을 보여주는 가족 간의 친밀감이나 부모와의 애착·갈등 등은 노인부양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봉사활동 경험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통하여 타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는 상황과 일치하지만 가족의 화목도가 높고, 진보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랐으며,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서 노인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교란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된다.

더미회귀분석 결과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부모님과 동거, 진보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 화목한 가정환경, 20대 근로자 등에서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화목한 가정의 유지, 결손가정 예방, 봉사활동의 보편화 및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노인 부양의식수준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조사하여 고령화 시대에 노인부양의 올바른 방안과 노인부양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부산시 소재 3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7년 8월 부터 10월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20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노인부양의식은 3.56 ± 0.51 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연령군이 20대인 경우와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군, 부모와 동거하는 군, 진보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란 군, 가족간의 화목도가 높은 군에서 노인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 여성 근로자의 노인 부양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봉사활동 경험여부,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의 교육방식, 현재 가족의 화목정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간호직 여성 근로자들의 노인부양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봉사경험 향상, 건전한 가족문화와 가정화목을 위한 사회적 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혜경, 김윤정 : 한국 치매노인 부양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과정, 한국노년학회지. 17(1): 35-50, 1997
- 2) Mary Dellmann-Jenkins, Maureen Blankemyer, Odessa Pinkard: Young adult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primary caregiver roles to older relatives and their service needs, Family Relations. 49(2): 177-186, 2000
- 3) 김송애, 조병은 :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9(2): 303-322, 1991

- 4) 한경혜 : 만성질환 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회지. 18(1): 46-58, 1998
- 5)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엮음 :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0
- 6) 통계청(2001, 12), 장래인구 추계.
- 7) 이병순 : 맞벌이 여성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영등포구 3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8) 서명순 :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병원직원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9) 정선주: 청·장·노년기의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0) 김태현, 전길양 : 한국의 노인가족부양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제7 집 94-95, 1997
- 11) 김진규 : 노인부양 복지정책에서의 가족역할 제고에 대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1, 2000
- 12) 유성호 :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70, 2000
- 13) 최혜경, 문숙재, 정순희, 조진명, 김은경 : 부양서비스가 노인과의 부양자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9(1): 16-17, 1997
- 14) 이금재 : 가족의 노인부양 질에 관한 모형 구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3-15, 2000
- 15) 김태현 :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가족부양의 실태와 부양 만족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 16) 성향숙 : 노인부양여성의 부양부담 분석에 따른 여성 복지 대책,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17) 박영란 : 노인부양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년문제연구소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14호, 1999
- 18) Lechner : V. M. Support Systems and Stress Reduction among Workers Caring for dependent Parents, social work, 38: 46-469, 1993
- 19) 심은지 : 노인부양의식의 세대 간 비교연구(부양예비세대, 부양세대, 피부양세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0) 이선미 : 노인부양에 관한 간호사의 인식도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1) 김지영 :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2) 조은주 :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부양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3) 박의순 :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